

광주 '스텔스 오미كرون' 공포

확진자 10명 중 8명 감염 80%대... 전국 첫 우세종·지배종 자리
감염 속도 빠르고 전파력 강해... 2차 재유행 가능성 배제 못해
내달 3일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조치 재조정 목소리

오미كرون보다 감염속도가 빠르고, 재감염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كرون(BA.2)'이 광주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1만명 대를 오르내리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스텔스 오미كرون 확산 양상에 따라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서 내달 3일자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집단감염 유행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1만 1819명을 기록했다. 이날 들어 하루 1만 5000명대까지 치솟았던 광주의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6일 9909명을 시작으로 27일 8933명, 28일 7481명, 29일(0시 기준) 7920명 등 4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했으나, 다시 1만명대 초반으로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일단 최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كرون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재유행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델타와 오미كرون 대유행으로 정점을 찍고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최근 새로운 변이인 '스텔스 오미كرون' 유행으로 2차 대유행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오미كرون 대유행과 스텔스 오미كرون 유행이 혼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이날 3주차 기준 국내 첫 스텔스 오미كرون 우세종 지역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현재는 국내 첫 스텔스 지배종 지역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의 스텔스 오미كرون 검출률을 보면, 2월 1주차 0.9%, 3주차 13.3%, 3월 1주차 34.4% 3월 2주차 45.6%, 3월 3주차 50.0%, 3월 4주차 76.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3월 3주차 41.4%, 3월 4주차 56.3%다.
일반적으로 검출률이 50%를 넘기면 우세종, 90% 이상이면 지배종으로 불리는 데, 현 감염속도라면 광주의 검출률은 이미 90%대를 넘어선 것

로 보인다.
스텔스 오미كرون 유행을 놓고 부정과 긍정적 전망이 교차한다.
대부분의 방역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كرون의 빠른 확산세를 감안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다소 늦추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정점구간에서 스텔스 오미كرون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들어 다시 반등하지 않고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에서 다시 스텔스 오미كرون으로 인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선 오미كرون 변이 유행이 정점을 보인 뒤 감소세를 나타내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에 이미 스텔스 오미كرون이 우세종화돼 유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유행이 진행된 나라의 세부 변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많지 않아 (스텔스 오미كرون 등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미كرون 변이는 BA.1, BA.1.1, BA.2, BA.3 등 크게 4개의 세부 계통으로 분류되며, 이 중 BA.2는 변이 종류가 잘 구분되지 않아 일명 '스텔스 오미كرون'으로 불린다. 현재 지배종인 기존 오미كرون 변이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중증도 등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심 고층 빌딩 봄맞이 대청소
봄 기운이 완연해진 2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건물에서 청소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건물외벽을 청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특유의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조의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경력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마감	4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4월 5일(화)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7일(목)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11일(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전기요금은 인상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 정부가 2분기 동결을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속 물가 안정을 위해 내리진 조처다.
단 앞서 발표되던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이상향되면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6.9원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를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을 정부에 제출했다.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72.6%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지만 지난 연말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은 그대로 반영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다음달부

터 추가적으로 내는 요금은 한 달에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요금 제외) 정도가 된다.
기준연료비는 오는 10월 kWh당 4.9원 한 차례 더 인상이 예고돼있다.
그동안 발전 원가 변동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최근 원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동결 결정으로 가계의 물가 부담은 덜게 됐지만 한전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딜러십 Grand Open!

신차, 인증중고차 전시장 그리고 서비스센터까지
One Stop 고객 만족 서비스!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